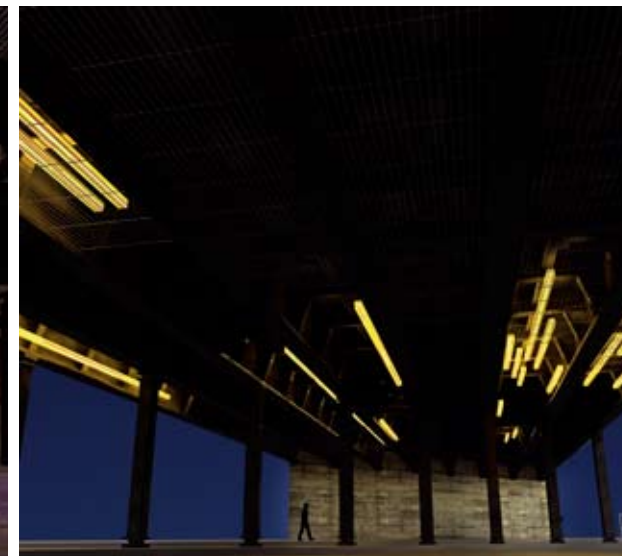




Max Joseph, Munchen, 2011

Susanne Rottenbacher: Susanne Rottenbacher was born in 1969 in Göttingen, Germany. She began her career studying stage and light design at Columbia University in New York and the Bartlett School of Architecture and Planning in London. After working as a stage designer at the Deutsche Oper Berlin, she has been focusing on light art since 2004. Rottenbacher's sculptures breathe the spirit of the kinetic art of the 1960s. In the early stages of her career she used the elements painting, light, and time in her work with acrylic boxes, and in recent years transparent circles of light have become the Berlin artist's trademark. Currently Susanne Rottenbacher lives and works in Berlin.



Stadtbahnbrücken City West, Berlin, 2011

Liz Kwon: I wonder what motivated you to explore and LED and Plexiglass as media of your works.

Susanne Rottenbacher: Plexiglass makes it possible to incorporate the surroundings into my works. With plexiglass I can produce transparent constructions giving off and absorbing light at the same time. It enables colored light to flow into the space and natural white light to be taken up in the sculptures; the composition does not remain limited to the perspex corpus. LEDs have the benefits of their small design and monochromatic light. The monochromatic, colored light of the sculptures firstly correlates with the stripe painting and the form of the perspex corpus. It then also interacts vividly with the specific light dynamic of the surrounding space creating a form of a continuous dialogue. With decreasing daylight, the work increasingly radiates into the space in an occupying manner.

Liz Kwon: In many of your works, the colored structures define the shape of the pieces during daytime, and they are illuminated by LED at night. How do you examine the color and form of the changing structures when you produce them?

Susanne Rottenbacher: I develop my spatial installations by means of three dimensional models. The models consist of the given architectural exhibition space plus my sculptural elements. Once I am certain about form and proportion of the sculptural pieces or arrangements I have the component parts delivered and produce the installations in my studio. I can then observe and investigate the work and its spatial performance at all times of the day because my studio and living space are located at the same place. Space, stillness, time and the correlated constant change of appearance are central themes in my work. The impression of the works changes depending upon the point in time at which the works are viewed. There is no SINGLE status quo. Change is the message. A sculptural form, perfectly controlled and defined, begins to change and becomes dependent upon natural processes-day/night, summer/winter, etc. All of this I can test and study beforehand in the run-up situation of my studio.

권이선: 작품의 주 소재인 LED와 플렉시 유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발전 시키게 된 동기가 궁금하다.

수잔느 로텐bacher: 플렉시 유리는 주변 환경을 작품 속에 통합할 수 있게 해준다. 플렉시 유리를 사용하면 빛을 방출하는 동시에 흡수도 하는 투명한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색깔이 있는 빛을 공간 속으로 흘려보낼 수도, 조각물 내부를 백색의 자연광으로 채울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가 퍼스펙스 (투명 아크릴 수지) 구조체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LED는 소형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빛이 단색이라는 이점이 있다. 조각의 단색 빛은 줄무늬 도색과 퍼스펙스 구조체 형식의 상관작용을 일으키고, 주변 공간의 특수한 빛과도 생동감 있게 상호작용하면서 연속적인 대화의 형식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은 자연광이 줄어들면서 점차 빛을 뿜어내어 공간을 점유하게 된다.

권이선: 많은 수의 당신 작품들은 낮에는 페인트 칠해진 구조물 이었다가 밤에는 LED 빛을 발한다.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하는 구조물을 위해 색감과 형태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잔느 로텐bacher: 나는 3차원적인 모형들을 이용해 공간 설치작업으로 발전 시킨다. 모형은 주어진 건축전시공간에 내가 조각한 요소들이 덧붙여지는 형태로 구성되는데, 일단 나는 형태, 그리고 조각들의 비율이나 배열에 확신이 들면 이러한 요소들을 이를 부품을 전달받아 스튜디오에서 설치 작업을 한다. 그래서 나는 하루 중 언제라도 진행 중인 작품과 그 공간적 성능을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다. 이는 나의 스튜디오와 주거공간이 같은 곳에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공간과 고요함, 시간, 그리고 관련된 항시적인 외관 변화가 내 작품의 중심 주제들이다. 작품의 인상은 어느 시점에 감상하느냐에 따라 변화한다. 단일한 상태가 유지될 일은 없으며, 변화가 곧 메시지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정의되는 조각적 형태는 변화되기 시작하고, 주간/야간, 여름/겨울 등의 자연적인 과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스튜디오 작업을 하기 전 단계에 미리 시험하고 연구해볼 수 있다.



3 Kontrapunkte für 20 Ringe, Hamburg, 2012

수잔느 로텐바허 : 수잔느 로텐바허는 1969년에 독일의 괴팅겐에서 태어나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무대 및 조명 디자인을 공부하고 런던의 바틀렛 건축 학교에서 수학했다. 그녀는 베를린의 독일 오페라극장에서 무대디자이너로 일한 후 2004년부터 조명 아트에 집중해 오고 있는데, 그녀의 조각 작품에는 1960년대 키네틱 아트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작업활동 초기에 그녀는 도색과 조명, 시간의 요소를 활용하여 아크릴 상자 작업을 했으며, 최근에는 투명한 빛의 원환들이 그녀의 특징이 됐다. 현재 수잔느는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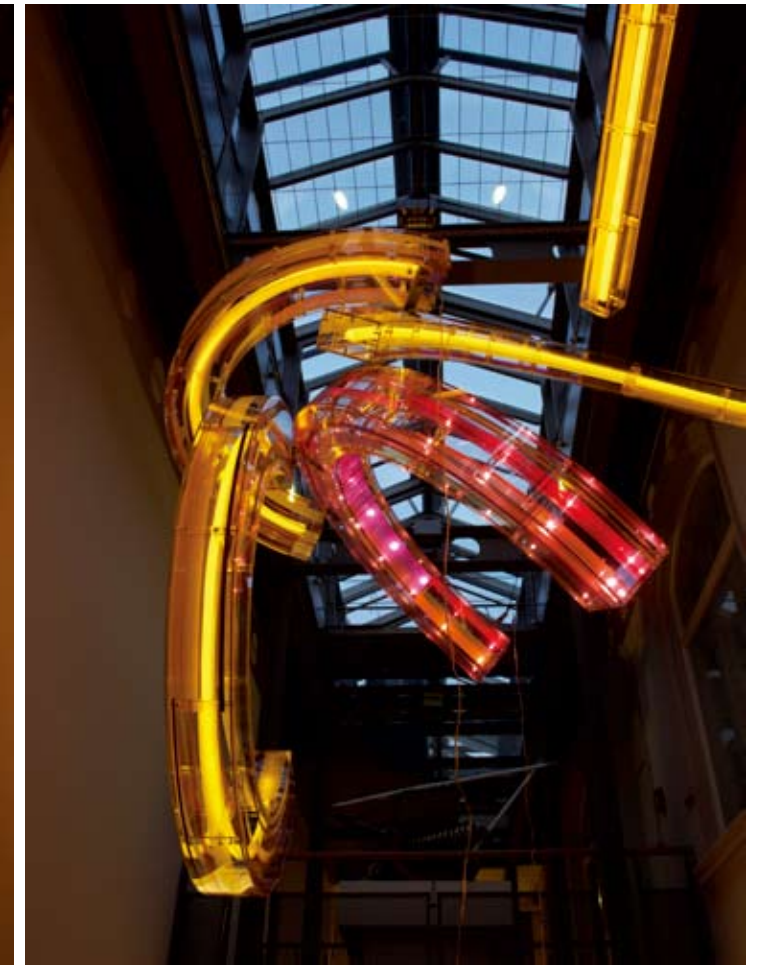
Freiheit, Köln, 2012

Liz Kwon : Please tell us about the process of the commission for the work <Freiheit> which was exhibited in Köln. How did your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a space that were necessary for the installation at the church differ from those for other projects?
Susanne Rottenbacher : <Freiheit> is a site-specific intervention in form and content derived specifically from the particular exhibition space of a church. The installation was inspired by a painting by Peter Paul Rubens in the Christian pictorial tradition of large movement scenarios 'The great last judgment', depicting the rising up of the blessed and the falling down into hell of the damned. The grand theatrical entrance of the eleven rings striding across the entire 16m height of the church interior has no one distinct reading of direction either. The installation <Freiheit> can be read both ways. Suspended from the ceiling by strands of wire, the sculptures seem to be floating weightlessly in space in an imaginary sense - each one by itself and yet all in spatial relationship to one another. Others are placed on the ground, either free standing or simply laid down. And other truncated forms seem to merge into the architecture as half circles, apparently progressing into walls and floors. The specific challenge of the vast church interior appeared to be the creation of a sculptural choreography as grand and dramatic appearance yet with a lightness and transparency allowing oneself to trail away in the almost meditative silence of the sacred place of a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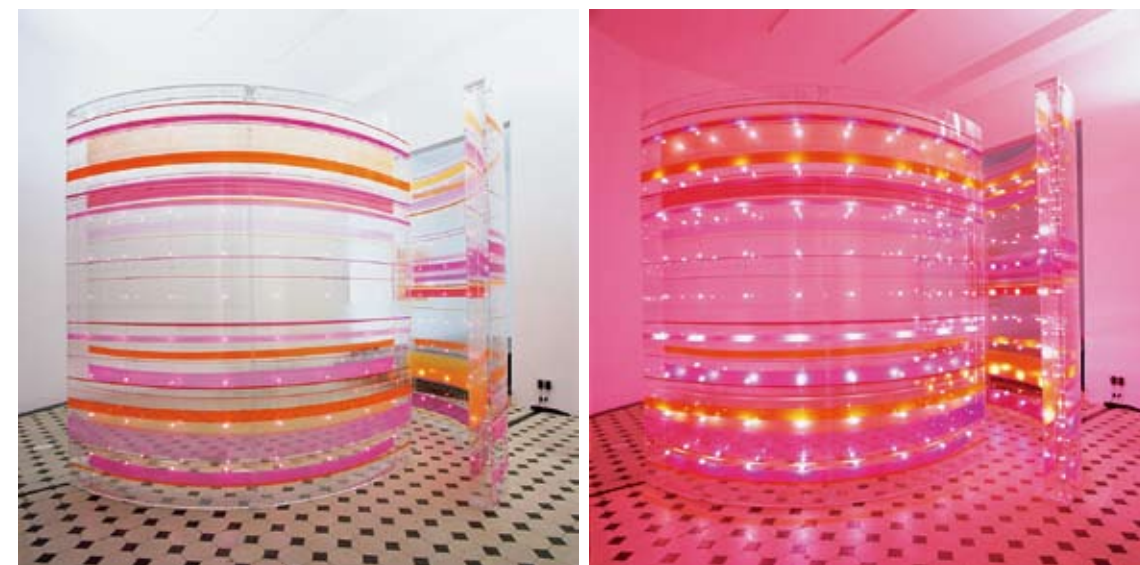
권이선 : 쾰른에서 전시된 <자유>의 커미션 과정이 궁금하다. 교회에서의 작업은 공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다른 프로젝트와는 어떻게 달랐는가?
수잔느 로텐바허 : <자유>는 교회라는 특별한 전시공간에서 형태와 내용이 특수하게 도출된 장소 특정적 설치작업이다. 이 작업은 기독교 회화에서 전통적으로 보여지는 대규모 시나리오 중 하나인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회화 '최후의 심판'에서 영감을 받은 것인데, 그의 그림은 축복받은 자들이 승천하고 저주받은 자들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작품이 교회의 16m 높이 전체를 가로지르고 11개의 고리로 설치되면서 연출된 극적인 분위기의 출입구에서는 어느 뚜렷한 방향도 읽히지 않는다. <자유>라는 설치작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철사줄을 이용해 천장에 매달린 조각들은 상상적인 의미에서 허공을 무중력적으로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며, 각각의 조각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공간적인 관계를 이룬다. 또 어떤 것들은 바닥에 자유로이 세워지거나 단순히 놓혀져 배치됐고, 단편화된 형태들은 반원 모양으로 건축물에 합쳐지듯 벽체와 바닥을 향하는 모습이다. 드넓은 교회 공간 내에서 작업하며 특히 어려웠던 점은 웅장하고 극적인 모습을 띠면서도 교회라는 성스러운 장소에 명상적인 고요함 속으로 찾아들어가는 가볍고 투명한 조각을 만드는 일이었다.



Shine A Light, Berlin, 2013



lichtaufwärts lightupwards, 2013



Color Crescents, Köln, 2008

Liz Kwon : How did your study of architecture and planning influence your works of art?

Susanne Rottenbacher : I was always fascinated by space in the first place and started to approach it from different directions. Maybe my technological work method is the handwriting I have found to express myself adequately through my study of architecture and planning. With industrial materials and the 'mechanical' depth of materials - transparencies, reflections, superimpositions, fractures, layers of color - I have found my language for creating my sculptural installations as site-specific, self-contained spatial narratives.

Liz Kwon : Please tell us about your recent and upcoming projects.

Susanne Rottenbacher : I just returned from Istanbul, where I was presented on the art fair 'Contemporary Istanbul'. Just before that I was shown on 'Vienna Fair' in October 2013. In November 2013 I presented with a new spatial installation work in the exhibition 'Scheinwerfer - light art in Germany in the 21st century' in the Kunstmuseum Celle, Germany. Mid January 2014 my work will be shown in a group exhibition in the sculpture museum MUBE in São Paulo, Brasil. And in March 2014 I will start to install a site-specific light-mirror installation - first place in an art for architecture competition - in the foyer halls of a new commercial building right across the Düsseldorf playhouse at the Gustaf Gründgens Platz, Düsseldorf, Germany.

Interviewer : Liz Yisun Kwon / Curator, Editor : Park Minsun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권이선 : 건축을 공부한 이력이 작업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수잔느 로텐bacher : 무엇보다도 언제나 '공간'에 매혹됐던 나는 다양한 방향에서 공간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나의 기술적인 작업방식은 건축과 설계를 공부하는 동안 내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손 글씨와도 같을 것이다. 산업적인 재료들뿐만 아니라 소재의 투명, 반사, 중첩, 파편, 색의 층위 등 재료의 '기계적' 깊이와 함께 나는 나의 조각 설치작품들을 장소 특정적이고 공간의 서사적 요소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나만의 방식을 발견하게 됐다.

권이선 : 최근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앞으로 선보일 작업과 전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수잔느 로텐bacher : 나는 막 이스탄불에서 돌아왔는데, 거기서 열린 '컨템퍼러리 이스탄불' 아트페어에서 전시를 했고, 그에 바로 앞서 2013년 10월에는 '빈 페어'에서 전시를 열었다. 그리고 2013년 11월 중에는 독일의 쉐르미술관에서 '스포트라이트 - 21세기 독일의 조명예술'에서 새로운 공간설치작업을 선보였다. 2014년 1월 중반에는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있는 뮤브 조각미술관에서 열릴 단체전에 내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며, 2014년 3월에는 독일 뒤셀도르프에 있는 구스타프 그룬트겐즈 플라츠의 뒤셀도르프 플레이하우스 맞은 편에 위치한 신축 상업건물의 현관 홀에서 건축공모 예술 부문 일등 작인 장소 특정적 조명-거울 설치를 시작할 것이다.

인터뷰 : 권이선 / 큐레이터, 편집 : 박민선 기자 ***저작권은 작가에 있다.